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6월 1주~6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 AHY 인프라조정장관, 거대방조제 청사진 2027년 완성 목표¹⁾(Bisnis, 5/22)
 - Agus Harimurti Yudhoyono(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5월 21일 Surabaya 방문 계기에 자바 북부 해안을 따라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건설할 대규모 사업인 Giant Sea Wall(GSW, 거대 방조제)의 청사진을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AHY 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공식 착공 전 예산 및 타당성 조사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약 960억불 (1,700tril IDR) 규모의 본 사업은 Banten Tangerang부터 동부 자바 Gresik까지 5개 주, 20개 군(kabupaten), 5개 시(kota)에 걸쳐 있어, 착공 전 중앙정부·주정부·군/시정부 간 비전 통합 및 긴밀한 협력이 관건이며 관련 부처의 로드맵·청사진 정교화가 병행될 예정
 - AHY 장관은 지반 침하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 범람 위험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Jakarta만(灣) 및 중부 자바 Semarang·Kendal·Demak을 지목하며, 연간 15~20cm에 달하는 지반 침하 실태를 Prabowo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힘
 - 본 사업의 방조제(길이 525km)는 해안에서 4~6km 떨어진 외해에 건설될 예정으로, AHY 장관은 어민·양식업자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부의 어촌 개발 사업(Kampung Nelayan Merah Putih)과 연계해 주민 복지를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522/45/1975677/menko-ahy-target-blueprint-giant-sea-wall-matang-di-2027>

○ [WtE] 인니 WtE 입찰 2차, 중국 기업이 후보 다수 차지²⁾(Jakarta Globe, 5/22)

- 중국 기업들이 인니 폐기물 발전(WtE) 입찰 후보 명단에서 계속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부펀드 Danantara가 주도하는 소각 사업이 본격화되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중. 앞서 1차 입찰에서 2개 중국 기업이 Bekasi, Bogor Raya, Denpasar Raya 사업을 낙찰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에서는 1차 대비 약 4배 많은 85개 기업이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해 후속 선정 단계에 참여할 예정.
- 일부 중국 기업(Sichuan Energy Investment Group, Grandtop Yongxing Group 등)은 단독으로, 다른 기업(Beijing GeoEnviron Engineering and Tech 등)은 PLN 자회사 PLN Indonesia Power Renewables 및 현지 기업 Bumi Karsa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 전체 참여 기업의 절반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이며 다수가 중국계 이고, 비(非)중국 기업으로는 한국 Samsung E&A 및 프랑스 Veolia가 참여. Danantara 청정에너지 자회사 Denera의 Fadli Rahman 대표는 파트너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 Rohan Hafas Danantara 이해관계자관리 담당 상무이사는 중국 기업의 높은 참여 비중에 대해 인니와 중국이 혼합·미분리 폐기물 처리 문화 측면에서 유사하여 중국 기술이 인니 여건에 적합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참고로 2026년 1분기 중국 본토 및 홍콩의 대인니 투자는 총 49억불 기록

○ [인프라] Indocement-SUN Energy, 인니 시멘트 산업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³⁾(OG Indonesia 6/2)

- 인니 대형 시멘트 제조 기업 Indocement는 인니 시멘트 산업 내 최대 규모인 71.9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PLTS)를 Citeureup,

2) <https://jakartaglobe.id/business/china-dominates-indonesias-wastetoenergy-tender-again>

3) <https://www.ogindonesia.com/2026/05/indocement-sun-energy-bangun-plts.html>

Cirebon, Tarjun 공장 단지 3개소에 분산 건설 중이라고 발표. 본 사업은 SUN Energy와의 협력으로 추진되며, Indocement 측에 따르면 연간 1억 800만 kWh 이상의 청정 전력 생산 및 8만 5,000t 이상의 CO2 배출 감축(연간 140만 그루 식수 효과에 상당)이 기대됨. Indocement는 본 사업이 시멘트·철강 등 탈탄소화 난이도가 높은 산업의 선도 사례이자, 인니 정부의 2060년 탄소중립(NZE)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평가

- Holger Morch Indocement 이사는 본 태양광 사업이 탈탄소화가 대규모·산업 운영 통합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고 설명. 본 사업은 Indocement의 탄소발자국 감축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RDF(폐기물 유래 연료) 활용, 저탄소 에너지 로드맵 개발과 병행되며, Indocement는 Heidelberg Materials 그룹 계열사로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 Jefferson Kuesar SUN Energy Director of Power는 SUN Energy가 산업 탈탄소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본 협력이 생산성 저해 없는 에너지 전환을 보여준다고 설명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기관] Pertamina-ERIA, 인니 에너지 전환 협력 MoU 체결⁴⁾(Antara, 5/24)
 -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공사 Pertamina는 인니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 목표 지원을 위해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와 MoU를 체결. 본 협력은 에너지 부문의 정책·경제 연구, 역량 강화, 지식 이전을 포괄하며, Pertamina의 전략 연구·정책 조직인 Pertamina Energy Institute를 통해 수행될 예정
 - Emma Sri Martini Pertamina 전략·포트폴리오·사업개발이사는 Pertamina가 이원성장전략에 따라 에너지 자립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국제 싱크탱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지속 확대할 것이

4) <https://en.antaranews.com/news/416821/pertamina-eria-team-up-on-indonesias-energy-transition>

라고 설명

- Martini 이사는 Pertamina가 화석연료 사업 최적화와 저탄소 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초점을 둔 이원 전략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본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기반 정책 연구, 에너지 경제 분석, 기관 역량 개발 측면의 지원을 받게 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 동사의 역내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 [현지기관] BRIN, 매립지 메탄가스의 에너지원 활용 기술 개발 중⁵⁾(Antara 5/26)

- 인니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인근 지역사회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 BRIN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의 Sri Wahyono 연구원은 본 기술이 동부 자바 Malang 등 매립지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파이프, 흡인 송풍기, 가스 정제장치 등 단순 장비를 활용해 메탄을 포집·정제(수분·이산화탄소·황화수소 제거)한 후 취사용 연료 또는 개조 발전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
- 기술 적용 절차는 매립지 폐기물 특성 조사, 메탄 잠재력 분석, 가스 우물의 수직·수평 설치, 흡인 송풍기를 통한 추출 및 정제로 구성. 현재는 주로 인근 지역사회 취사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발전도 가능하나 안정적 가스 공급 유지가 주요 과제. 본 기술은 인니의 폐기물 증가 및 매립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박이라는 배경 속에서 일부 매립지에서 효과를 입증

○ [해외기업] 헝가리 기업, Batang 경제특구와 친환경 에너지 협력 MoU 2건 체결⁶⁾ (Antara 6/2)

- 인도네시아 Batang Industropolis 경제특구(SEZ)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Indonesia's New Economic Frontier 투자 포럼을 계기로

5) <https://en.antaranews.com/news/416973/indonesia-develops-landfill-methane-into-energy-source>

6) <https://en.antaranews.com/news/417606/hungarian-firms-sign-green-energy-deals-at-batang-sez>

친환경 에너지 분야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 본 협약은 Batang Industropolis 경제특구 개발·운영사 PT Kawasan Industri Terpadu Batang과 헝가리 기업 Merlion Tech Ltd, Iconic Energi Kft 간에 이루어졌으며, 양 헝가리 기업은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환경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 중

- Rizal Edwin Manansang 국가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헝가리의 연구 역량과 인도네시아의 시장 규모·인프라 결합을 통해 보건의료·제약·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
- Agung Putu Ngurah Wirawan Batang Industropolis 경제특구 사장은 동 특구가 누적 약 13억불 투자 유치 및 약 1만1,000명 직접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토지 판매도 2024년 104ha, 2025년 97ha로 인니 산업단지 평균(연15~20ha)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힘. 헝가리 상공 회의소는 Batang Industropolis 경제특구를 헝가리 수처리 기술 시범 사업 대상지로 제안한 바 있음

3. 정부 정책동향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비전통 석유·가스(MNK) 사업 가속화 위한 신규 인센티브 준비⁷⁾(Bisnis, 5/2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비전통 석유·가스(MNK) 개발 가속화를 위한 신규 인센티브 규정을 준비 중. Laode Sulaeman ESDM 석유·가스 총국장은 Banten Tangerang IPA Convex 행사에서 기존 여러 규정을 개정해 금년 내 신규 규정을 장관령(Kepmen) 형태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 정부는 이미 관련 장관령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영석유가스공사 Pertamina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Laode 총국장은 미국이 비전통 석유·가스를 통해 장기·대량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521/44/1975406/esdm-siapkan-insentif-baru-untuk-percepat-proyek-nigas-nonkonvensional>

생산을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인니도 이를 미래 주력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

- Oki Muraza Pertamina 부사장은 인니가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최대 113억 배럴(원시부존량 기준)의 잠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Easy energy 시대 종료 속 희소식으로 평가. Oki 부사장은 현재 인니의 과제가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규정 및 재정 정책 시행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미국 Permian Basin과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파트너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언급

○ Batam 해상풍력 부품 제조 사업 추진 8)(Antara, 5/28)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확대 및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 내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Batam에서 첫 해상풍력 부품 제조 사업을 추진 중. 본 사업은 PT McDermott Indonesia가 개발 예정이며, 동사는 최근 Tennet 2GW 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을 지원하는 2개 신규 제조 시설(블록 조립 시설 및 블래스팅·도장 시설)을 완공. Rachmat Pambudy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본 사업이 Batam 및 인니 경제 전반에 경제·투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 Ansar Ahmad Riau Islands 주지사는 본 사업이 Batam을 해상풍력 핵심 부품 제작 허브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설명. 본 풍력 부품 제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7,000명의 현지 인력 고용이 예정되며, 구조 설계는 현지 엔지니어가 전담할 예정. 본 사업은 2026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7.04% 성장한 Riau Islands 경제를 추가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8) <https://en.antaranews.com/news/417225/indonesia-to-develop-first-wind-energy-conversion-project-in-batam>

○ Prabowo 대통령 우선 인프라 사업 위해 약 19억불 추가 예산 필요⁹⁾
(Bisnis, 6/2)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Prabowo 대통령이 추진 중인 우선 인프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 기준 약 19억불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힘. Dody Hanggodo 공공사업부 장관은 6월 2일 국회 제5위원회 (Komisi V DPR RI) 합동회의에서 추가 예산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관개시설 · 지역도로 사업, Madrasah(이슬람 학교) 재건, Sekolah Rakyat 건설, Wanam 식량 · 에너지 · 수자원 자급자족 구역 재건 등에 요구된다고 설명. 동 예산 신청은 5월 22일 재무부에 이미 제출 완료
- 세부 편성은 지역 관개시설 약 8억불 (14.65tril IDR), 2026~2027년 지역도로 유지보수 약 6억불 (12tril IDR), Sekolah Rakyat 건설 3단계 약 2억불 (3.95tril IDR), Madrasah 재건 약 0.2억불 (0.38tril IDR) 등. 진행 중인 사업의 공정률은 Sekolah Rakyat 건설 67.5%, 지역 관개시설 82.73%, Madrasah 재건 41.88%, Wanam 메가사업 12.67% 수준

4. 녹색산업 동향

○ 인니, 태양광 발전 100GW 목표, 1,000억불 이상 투자 필요¹⁰⁾(CNBC Indonesia 5/25)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100G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1,000억불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완공 시점을 향후 3년 내로 설정. Eniya Listiani Dewi ESDM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보존 총국장은 제50회 IPA Convex 행사에서 정부가 본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력 계획을 정렬 중이며, 막대한 자원 조달을 위해 국제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 정부는 사업 재원의 대부분을 IPP 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하며, 민간 부문이 전체 필요 투자의 최대 70%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2/45/1977858/kementerian-pu-butuh-tambahan-anggaran-rp3433-triliun-untuk-proyek-prioritas-prabowo#goog_rewarded

10)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60525135808-4-737824/ri-punya-target-100-giga-watt-plts-butuh-investasi-rp1772-triliun>

- 100GW 태양광 발전 개발의 주된 목적은 현재 동부 인니에서 주를 이루는 디젤 발전소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일부 오지의 디젤 발전 비용이 kWh당 1달러를 초과할 만큼 높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정부는 태양광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감축 및 현재 6.7 수준인 국가 에너지 안보 지수 강화를 기대.
- 한편 Prabowo 대통령은 3월 30일 도쿄 Indonesia-Japan Business Forum에서 2029년까지 태양광 설치 용량 100GW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태양광 가속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인니는 태양광 외 지열, 바이오디젤(B50), 바이오에탄올 등 국내 자원 기반 대체에너지도 함께 추진 중

○ 인니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6년 1분기 18.3%로 상승¹¹⁾(Petrindo, 6/1)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자료에 따르면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25년 15.75%에서 2026년 1분기 18.3%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ESDM 2025-2029년 전략 계획상 올해 목표 범위(17~21%) 내 수준.
- 1분기 신재생에너지 믹스 중 전력 부문은 9.75%p(수력 3.59%p, 바이오매스 3.27%p, 지열 1.91%p, 태양광 0.51%p, 풍력 0.06%p, 기타 0.41%p), 비전력 부문은 8.55%p¹²⁾FAME 기반 바이오디젤 5.38%p, 바이오매스 활용 2.91%p, 기타 0.26%p)로 구성
- 인니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5.75%(설치 용량 15,630MW 상당)는 2025-20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 목표(15.9%)에 다소 못 미친 수준이며, 정부는 기존 1차 에너지 믹스 목표 23%를 2030년 달성으로 조정하고 2045년까지 46% 달성을 목표로 함

11) <https://www.petrindo.com/news/article/indonesia-s-renewable-energy-share-rises-to-18-3-in-q1-2026>

12) FAME: 식물성·동물성 유지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원료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청, 신수도 사업 친환경 정책 병행 강조¹³⁾(CNN Indonesia, 5/25)

- 신수도청은 신수도 사업이 현재 중단되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으며, Troy Pantouw 대변인은 Universitas Mulawarman 등 동부 칼리만탄 소재 4개 대학에서 신수도 건설이 환경 측면을 지속 고려하며 진행 중이라고 설명. Troy 대변인은 Basuki Hadimuljono 신수도청장 정책에 따라 신수도청 인력이 직접 식수(植樹) 활동을 추진하고 신수도 내 태양광 패널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
- 현재까지 신수도 개발에는 72.39조 루피아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이 중 순수 민간 투자 60.2조 루피아, 부처·기관 공공시설 및 위탁 사업 12.1조 루피아로 구성. 75건의 협력 계약 중 국내 사업자 64건, 외국 투자자 11건(한국·중국·UAE·러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6개국)이며, 투자는 주거·인프라·에너지·숙박·스포츠 센터·상업 시설 등에 분산. Troy 대변인은 신수도가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동부 칼리만탄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

13)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30525174657-92-1362260/otorita-tidak-benar-kalau-ada-yang-bilang-ikn-mangkrak>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955, 샵하우스 387)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최종 FS 완료단계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7월 예상)

○ (주요동향) KIND - SML 고위급 면담

② 란닥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주주 및 Offtaker) 등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연60만톤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사업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26년 센터목표) 사업개발비 투입, FS 검토 및 실사 / 결과에 따라 투자의결

○ (주요동향) 원개발사 출장, KIND센터 면담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1,694헥타르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KIND-GS건설-AMG 3자면담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완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지원 FS 용역 재입찰공고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현재 공사중 / 대출약정 체결 ('26.1.15)
- ('26년 센터목표) 금융종결 / 프로젝트운영실 이관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KIND 본사출장단 SM+ CEO 면담 및 현장방문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 6월 1~2주차)

- 네트워킹 4건 : 신한투자증권 · LG CNS · 유신, 국토관 · 건설공제조합 · 교민로펌 · 기업, 삼일회계법인, 건설공제조합 · BNG건설팅
- 사업개발 8건 : 시나르마스랜드, 코린도건설 · 코린도중공업, IES, SM+, JD International, GS건설 싱가포르법인, 시나르마스랜드, INA
- 대관업무 6건 : 대사관 국토관 · 주아세안대표부 국토관 · 인프라공기업, 주택정주부 차관, 대사관 · 주아세안대표부, 주인니대사, PLN, Danantara · 한국투자증권